

그는 그러한 의존과 복종이 독재자에게 자유를 맡기는 전체주의를 낳게 되며 개인은 사물화, 도구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립과 무기력이 커져 가며 많은 교류가 통제하기 쉬운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에리히 프롬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거대한 세력의 강압이 아니라도 베리칩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사회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점점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에 대한 우선적 가치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권과 생명에 대한 경시 등 여러 윤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유용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베리칩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 사회는 '불안을 권하는 사회'이다. 각종 괴담과 공포가 도처에 있고,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다. 미래가 불안해서 열심히 일하며 사건, 사고, 재해, 질병 등 여러 불안 요소를 때문에 안전을 위한 소비를 한다. 여기에 유괴, 실종 등 사건 사고와 관련된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는 전 사회가 안전에 집착하게 하여 인권이나 윤리적 문제를 억누르는 원인이 된다.

베리칩과 종말론 (Verichip and Eschatology)

베리칩 논란의 핵심은 결국 종말론과 닿아 있다. 신학적 논의를 최대한 배제한 채 정신과적 관점으로 베리칩의 종말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무기력이 팽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한 열광으로 심리적 무기력이 표출될 수 있다. 또한 여러 현상들이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을 베리칩에 잘못 투사(projection)시키게 되면 시한부 종말론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특정 종파나 세력이 위기론을 통하여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종말과 관련하여 베리칩의 수용 여부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종말이 다가올 때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들의 다양함과 모호함을 건드릴 수 없어 이를 단순화시키는 전치(displacement: 생각, 감정 등을 수용가능한 다른 것으로 바꿔 놓는 것) 현상일 수도 있다. 즉, 베리칩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대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며 구원에 대한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결론 (Conclusion)

베리칩과 관련된 신학적 논쟁을 떠나 네트워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자유를 반납하는 전체주의나 편안하고 효율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베리칩은 불안과 망상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 연결될 수 있으며 베리칩 논쟁과 관련하여 불안, 투사, 전치 등의 심리적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



박준현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이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강사로 있으며 사회정신의학 학회지 편집간사를 맡고 있다. 한국정신분석학회, 대한조현병학회 정회원, Research Trainee in Mayo Clinic Molecular Pharmacology Experimental Therapeutics이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건강보험개혁법이 미국 국회를 통과했다. 2010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법을 서명하면서 그동안 가난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3,200만 명이 정부 보조 등을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새 법안에는 미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삽입하는 기구(device that is implantable)에 대한 언급이 있다. 미국 국민이라면 유사시 병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의 의료 정보 등이 담겨 있는 베리칩(verychip=verification chip), 즉 일종의

무선식별(RFID) 장치를 몸에 이식받을 것이라고 한다. NBC는 “2017년까지 우리 모두 몸에 칩(chip)을 이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보하였고, 2013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베리칩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디지털 솔루션스(Applied Digital Solutions, www.adsx.com)사가 선보인 마이크로칩(microchip)이다. 앞으로 여기에 GPS 기능을 추가하면 개인의 행방을 추적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베리칩은 사람의 인체 안에 미세한 마이크로칩을 주입

해 인체정보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고안한 전자 인식 도구이다. 이 베리칩은 의료 정보 파악 등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있다 하여 끊임없는 인권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여러 사람의 개인 정보를 누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 사람이 동의할 때에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논의를 위한 원칙의 설정

그러나 이것을 종말론과 연관시켜서 논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짐승의 표(666)가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면서, 베리칩 이식을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몇 기독교 단체가 베리칩을 받지 말자는 단체 문자를 발송했으며,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설교한 목사님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베리칩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분명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베리칩이 참으로 짐승의 표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이유에서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이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짐승의 표 ‘666’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어떤 현상과 1:1로 대응시켜 논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이러한 경향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계 13:16-17)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마이크로칩을 이마나 오른손에 주입할 것이고, 장차 고도의 전자 사회가 되면 이것 없이는 매매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꼭 이마나 오른손에 주입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베리칩이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베리칩이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아직까지는 단언할 수 없다. 오늘날의 기술로는 전자 장치와 인간의 정신이 상호 작용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짐승의 표’ 666의 진정한 의미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16-18에 말하고 있는 ‘짐승의 수’, 즉 ‘사람의 수’(계 13:18)라는 666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다른 숫자들과 같이 ‘상징적 숫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이 “666의 상징적 의미는 요한계시록 해석에서 가장 많이 논쟁된 것이다.”¹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종들에게 주인의 표시를 하던 옛 관행을 반영한 심상(心象, image)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을 찬탈하고 있는 세력의 종노릇을 한다는 말이다. 즉, 가장 건전한 해석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을 주(主)와 왕(王)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에게 속해 있다는 표, 즉 그러한 특성들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사회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모든 것을 편안히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 오직 나사렛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 즉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속해 있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정체성과 안정감을 얻는 것’이다.

666은 ‘6이라는 수가 (유대인의 관념에서) 하나님의 수인 7에 대해 항상 모자란다는 점에서 사람의 수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 헨드릭슨은 이것이 악의 ‘계속적인 실패’를 나타낸다고 말한다.³ 아마도 요한은 이를 세 번이나 겹쳐 표현함으로써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악하다는 것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이런 악함(즉 ‘짐승의 표’)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한 듯하다.⁴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악함이라는 짐승의 표(특성)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런 원칙 하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성격이나 그런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속적 악함’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상징적 숫자’인 666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서 이 땅에서 세상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베리칩을 몸 속에 이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악한 세력에게 속한 ‘표(특성)’를 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표(특성)’를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가가 중요하다. 즉, 요한의 요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성경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울지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이 세상의 특성을 나타내며,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남들이 부러워하게끔 살 것인가 하는 것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시며 유일하신 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신의 존재 전체로 섬기며

1. David E. Aune, Revelation 6-16, Word Biblical Commentary 52B (Nashville: Thomas Nelson, 1998), 770.
2. Philip E. Hughes,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0), 154: “The number 6 has understandably been regarded as a symbol of man, in that it falls short of seven, which is the divine number.”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는 그 글자의 숫자를 가지고 표시하는 소위 “게마트리아”(gematria) 방식에 의하면 7을 항상 넘어서는 방식으로 표현된 888(이오타=10, 에타=8, 시그마=200, 오=7, Y=400, 시그마=200)인데, 그와 달리 “짐승의 수”는 온전수(the perfect number 7)에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666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은(Leon Morris, Revelation, revised edition,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Leicester, IVP and Grand Rapids: Eerdmans, 1987], 168; Craig S. Keener, Revelation,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0], 354) 흥미롭기는 하지만 “예수”의 888과 꼭 대조적으로 표현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진다.
2세기의 이레니우스도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Evantas, Lateinos, 그리고 Teitan 등의 여러 이름이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Irenaeus, Against Heresies, 5:30). 그 이후에도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서 Cf. G. B. Caird, A Commentary on Revelation,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New York: Harper & Row, 1966), 174-76; 또한 100여개의 이름을 언급하며 정리하고 있는 David Brady, The Contribution of British Writers between 1560 and 1830 to the Interpretation of Revelation 13:16-18 (The Number of the Beast): A Study in the History of Exegesis (Tubingen: Paul Siebeck, 1983)도 보라. 이 모든 제안들이 모두 다 대답에 가까워 갈 수 없었다고 선언하는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265를 보라.
3.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Grand Rapids: Baker, 1944), 182: “failure upon failure upon failure upon failure.”
4. 이런 해석의 대표적인 예로 Morris, Revelation, 168f.을 보라.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소위 '집중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구별된 의식과 삶의 태도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표이며, '집중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베리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따라서 베리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베리칩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의료 기록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하여 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의 유익한 점도 있으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성, 그리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베리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흥미롭게 논의해 볼 만한 주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기에 중생한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하며 논의하는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여겨야 한다.

즉, 이것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이다.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각자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신속한 의료적 돌봄과 도움을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중국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는 것이 편안하기는 해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성경의 입장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베리칩을 요한계시록과 연관시키거나 기독교적 종말론과 연관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성경해석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위해 더욱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각자 신실한 의견을 제출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를 걱정하면서 베리칩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도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분들은 또한 다른 분들이 베리칩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표현한다고 그런 입장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기독교적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누구라도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베리칩을 이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베리칩을 요한계시록이나 기독교적 종말론과 연관시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성경해석자들이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기독교적 증언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 본 칼럼은 <목회와 신학> 2012년 9월호(P. 152-156)에 실렸던 칼럼으로 저자의 동의하에 기고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총신대학교와 합동신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영국 St. Andrews 대학교 신학부에서 조직신학 전공의 석사 학위(M. Phil.)와 박사 학위(Ph. D.)를 받았다. 합신 교수 외에도 연와 교회의 협동 목사로 말씀을 섬기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 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 <우리 사회 속의 기독교> 등의 기독교세계관 시리즈 책과 <교회란 무엇인가>, <사도신경>, <광장의 신학>, <인간 복제, 그 위험한 도전>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책과 <개혁신학 탐구>, <전환기의 개혁신학> 등 개혁신학 책을 내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지난 2013년 12월 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성신생명윤리연구소 창립 16주년 기념세미나 "베리칩(Verchip)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편집되었습니다. <월드뷰>는 사회적 이슈에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여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바른 안목을 제시합니다.

어린이 · 청소년 기독교 세계관 교재 드디어 출간!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기독교 세계관 전문가가 만든 생각훈련 길리잡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영·공!”(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요)을 외치면서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 이 책이나 주말 세계관학교에 관심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자 직강 및 세미나도 가능합니다. 02)745-7231



성경적 삶과 문화를 창조하는 도서출판 CUP
www.cupbooks.com 02)745-7231